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체력 쑰~욱, 실력 쑰~욱 꿈을 펼쳐봐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 프로그램 현장



난나수련관을 찾은 학생이 열심히 한자 공부하는 모습.

**방과 후 저소득층 아이들 위해 교실 운영  
죽도 무게에 몸이 휘청거려도 웃음꽃 만발  
중학생 언니·오빠들은 영어·논술 '삼매경'**

2월 5일 서울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 (관장 김준기·이하 난나수련관). 이미 해는 넘어가고 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킨다. 그 때부터 개구쟁이들이 하나 둘 1층 강당을 찾아들기 시작한다. 약 30여명의 아이들이 모이자 저마다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친구들과 토닥거리기 바쁘다.  
"정렬!"  
하윤화(강북검도연합회 사무국장) 사범님의 목소

리가 떠드는 아이들의 한 가운데를 갈라놓는다. 그제야 개구쟁이들은 강당에 모인 목적을 떠올린다. "잠, 방과 후 교실에 검도를 배우러 왔지."  
난나수련관에서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다. 학교 정규 수업시간이 끝나고 나면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 수련관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것.  
2005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난나수련관은 올 들어 수련관의 운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이사장 혜자)으로 바뀌어 불교계가 수탁하게 됐다. '난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청소년을 길러내기 위해 길을 더욱 잘 닦는 것이 법인의 목표다.  
"머리, 어깨, 손목, 무릎!"  
"머리-. 어깨-. 손목-. 무릎-."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사범님의 선장에 아이들도 기합소리를 따라 하지만 어찌 축축 땀이 지는 것이 신동쯤이다. 기합이여 어떻게 사범님을 따라하려 죽도를 휘두르는 팔에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평소와 그렇게 잘 돌아갔던 팔도, 팔뚝뚝 뛰어들었던 발도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 아직은 동작이 힘이 부치기 때문이다. 몸이 휘청거릴 때 마다 아이들의 서로 마주본 얼굴에 배시시, 웃음이 피어난다.  
검도는 예(禮)를 중시한다. 때문에 검도 시간에 떠드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딴 짓'을 하는 아이에게도 '호랑이' 하 사범님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정지선(초등학생 가운뎃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의 이러한 변화를 누구보다 반긴다.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 조금 힘들었던 집중력을 발휘해 주는 것이 너무 기뻐하네요."  
검도를 하면 어떤 점이 가장 좋으냐고 묻자 아이

들은 서로 대답하려 아담번씩이다.  
윤주(삼양초등 4)와 지영(삼양초등 5)이는 운동화와 '짱'이라며 엄지를 세운다. "다이어트도 되고 평소엔 못하던 운동을 할 수 있고요, 재밌어요."  
개구쟁이들이 검도 수업을 하고 놀이 학습을 하는 동안 이들과 머리 굵은 중학생 언니·오빠들은 수련관 3층 난나 교실에 앉아 있다. 영어·논술·한문 등 다양하게 마련된 수업을 듣기 위해서다.  
이제 한창 예비해진 시기여서 그런지 중학생들의 수업은 초등학생 반보다 훨씬 이끌어가기 힘들다. 초등학생들은 친구를 사귀는 게 재미있어서라면 중학생들은 학원이나 학습지를 신청할 돈이 부족하다는, 훨씬 현실적인 이유를 안고 수련관을 찾는다.  
중학생 반 담임을 맡고 있는 김선희 선생님은 아이들의 의기소침한 모습이 누구보다 가슴 아프다.  
"한번은 예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상급고등학교 가서 자동차 정비공 할래요' 라고 해요. 집안 형편부터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마다 마음이 아파요. 선택을 강요당한 것 같아서 말이예요."  
하지만 어떻게 아이들에게 꿈이 없으랴. 소박하게나마 꿈 한 포기 숨어주며 키워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에 난나수련관 방과 후 교실에 찾아오는 것이다.  
재영(가명·화계중 3)이에게 난나의 의미에 대해 물었더니, 이들에게 현재 가장 두려운 것이 난나수련관에서 '재직' 당하는 것이란다.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 현실을 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는 나름대로 '꿈'이예요. 함께 꿈을 만들어 가는 거죠. 지금 당장 거창한 미래는 보이지 않아도 말이예요.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글·사진·김강진 객원기자

##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조계종 포교원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조계종 포교원과 '현대불교'가 2007년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996년 '새싹불자를 키웁시다'란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했던 현대불교가 다시 같은 주제의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 현상이 여전히 메달라 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발전시키고는 불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올해부터 어린이 포교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새싹 불자 키우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대불교' 역시 불교의 미래를 밝게 열겠다는 각오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캠페인 전용 지면 두개면 마련**  
'현대불교'는 매주 2페이지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면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활기찬 법회 현장과 각종 활동 현장을 소개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만화, 칼럼 등의 연재를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중립학교에 '현대불교' 보내기**  
현재 불교계 중립학교는 30 곳이며 총 학급 수는 750 개에 이릅니다. 가장 가까운 포교 마당인 중립학교 교실마다 '현대불교'를 보내 어린이·청소년들을 불교와 보다 친근하게 인연을 맺어주고자 합니다. 또 각 중립학교의 교장·교감 선생님과 교편사, 도서관, 불교 동아리 등에서도 '현대불교'를 매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립 종교교생 논술 경시대회**  
논술이 입시의 최고 '권杖'으로 떠올랐습니다. 중립 종교교생들의 논술 기량을 높이고 불교의 교리와 사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논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논술 경시대회를 개최해 중립학교 학생들의 학업을 돕겠습니다.

**■ 수험생 위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특별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자비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해 주목받고 있는 마가 스님(천안 만일사 주지)이 2월 10일과 11일, 24일과 25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자비명상'을 진행합니다. (문의 02-2004-8237)

**■ 희망의 템플스테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사찰에서 며칠 묵으며 각종 문화와 수행을 체험하는 것은 인생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현대불교'는 방학을 이용해 보다 알차고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겠습니다.

캠페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국민은행 006-01-0783-279(현대불교)

## 6

###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건전한 청소년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제9기 '청소년회의' 청소년위원을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2007년 4월~2008년 3월이며 선발인원은 50명 내외다. 지원마감은 3월 20일까지. (02)2667-0874-5

#### 서울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N&N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대상은 중2~고3 학생이며, 활동영역은 동물놀이·마술·장애나들이·무료급식지원 등이다. 활동은 매주 토·일요일, 선착순 접수. (02)2250-0507

#### 서울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에게 직업탐방의 기회를 제공하여 조기 직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꿈방방송인'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중고등학생 40명이며, 2월 21~22일 양일간 진행된다. 참가비 2만원, 선착순 접수.(02)2226-6229

#### 서대문청소년수련관에서는

2월 이색체험 토요스쿨로 '와이어로 만드는 나만의 액자 만들기(7세~초등 6 대상)'와 '얼마와 함께 만드는 황금돼지 토퍼(초등 대상)'를 준비했다. 강습일은 2월 24일, 참가비 각각 6천원, 9천원. 2월 19일부터 선착순 접수.(02)330-0080

#### 동국대 사회교육원에서는

명상음악치료 강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강의는 총 3학기 과정이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진행된다. 2월 28일까지 등록.(02)2260-3728-9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 보우승가대학 (2007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지금! 사찰발전에 필요한 실재적 이론과 의식을 최우선으로 배울 학인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1주일에 2일만 할애하면 교수님들의 열의와 교육제도로 실력을 완성해 드립니다.

## 1. 입 학 안 내

① 모집학과 및 정원 ● 불교학과 : 30명 ● 법패학과 : 30명 ● 불교문화예술학과 : 30명

## 2. 응시자격

- 신입생 : 불교적 소양과 도타운 신심을 가진 성인
- 편입생 : 지원학과에 걸맞는 실력을 갖춘 이

## 3.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4. 원서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02)763-5213
- 기 간 : 2007년 1월 15일 ~ 2월 26일

## 5.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통
- 2. 주민등록 초본 ..... 1통
- 3. 반명함판 사진 (3cm×4cm) ..... 3매
- 4. 중단추천경우 : 중단 대표자 추천서 ..... 1통

## 2. 면 접 일 시

● 2007년 2월 27일 오후 2시

## 3.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게시판

## 4. 교 과 목

불교학과	불교학개론, 불교사(인도, 중국, 한국), 철학개론(동양, 서양), 비교종교학, 초발심자경문, 교리발달사, 사미율의(기초의식), 원전강독(금강경, 원각경, 화엄경), 구사유식, 계율론, 대승사상, 밀교개론, 사원경역(중무행경, 상담), 선학개론, 포교학, 불교와 사회복지
법패학과	상주권공(시련, 대령, 관육, 신중작법, 관음 시식, 화청), 작법무 (나비춤, 바라춤, 범고춤), 불교의식 이론불교학개론, 불교사(인도, 중국, 한국), 계율론, 선학개론, 교리발달사, 포교학
불교문화 예술학과	재설비 (도량장엄, 불단장엄, 고임세, 지화), 전통수가사, 서예(기초, 장엄서예) 불교학개론, 불교사(인도, 중국, 한국), 계율론, 선학개론, 교리발달사, 포교학
특 강	● 생활역학 : 명리학 이론과 실천, 길흉방위, 풍수지리, 작명, 택일, 궁합. ● 호 적 : 천수가락, 엄불가락, 요잡가락, 능계가락, 취타가락

## 5. 교 수 진

신규택(연세대학교), 김영진(동국대학교), 김치은(동국대학교), 문우왕(동국대학교), 이효원(한국종교문화연구원), 일휴스님(경상강원 강주), 지홍스님(승가대이사장), 금담스님(승가대부학장), 능해스님(승가대학교), 경희스님(승가대학교), 대각스님(승가대학교), 대혜스님(승가대학교), 백영희(승가대학교)와 교내외석학

## 6. 문 의

(02)763-5213. www.bowosamgha.com

# 보우승가대학학장